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허 민 지¹⁾

김 진 옥²⁾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파악하고, 유아의 행복감을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으로 설정하여 이 변인들이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각 변인들이 유아의 행복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동시에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 154명, 유아의 어머니 154명, 담임교사 19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인 설명력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경우, 기관에서의 적응이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보다 유아의 행복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육의 질 확보가 유아의 행복감 확보를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린이집, 유아, 행복감

* 이 논문은 허민지의 2017년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며,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jwkddorang2@mju.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 연속 자살률 1위(이수영, 2016),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안재민, 2016),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강조하며 행복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보건복지부는 제1차(2015년-2019년)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아동의 행복과 존중’을 선포하며, 아동의 행복 수준을 10년 안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5), 교육부(2016)는 ‘행복 교육’을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현, 김성미, 2014; 박찬옥, 2014; 이경민, 2009). 1938년부터 추적 연구를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성인발달 연구팀은(George Vaillant, 2010),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 중 우울증에 걸리거나 노년기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소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영유아기는 뇌 발달이 활발한 시기로 유아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성취하고자 하는 내재적 성향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조절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안경숙, 2013). 따라서 행복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삶의 질과 인

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박주은, 2016) 2000년대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복연구는 2015년 기준 논문 110편이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되어 행복감 증진을 위한 현장 및 학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이경민, 2016). 하지만 행복연구는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 대상 연구는 전체 연구의 2.5%정도로 여전히 유아 대상 행복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지혜, 최혜순, 2014).

최근 가정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 유아들 중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보건복지부, 2015), 재원 유아는 하루 중 평균 7.37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며,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가정보다도 어린이집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는 유아의 많은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현, 김성미, 2014). 따라서 행복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 행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의 행복 수준은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교육환경의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행복감은 연령과 성별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먼저,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행복감은 차이가 있으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강영옥, 2009; 권기남, 성미영, 2010; 김도란, 김정원, 2008; 남덕임, 2004; 이은주,

2010).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탄력성, 기질적 특성,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고현, 김성미, 2014; 김희숙, 2007; 오연주, 김현지, 이정수 2015; 이은주, 2010). 자아탄력성은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적절히 극복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 주목되고 있다(홍지명, 2015). '탄력성'이란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서(임상희, 2006), 변화하는 환경에서 융통성이 있게 반응하는 적응능력을 말한다(고영희, 2010). 부모와 분리되어 장시간 기관에서 생활해야 하는 유아는 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최미진, 유희정, 2013). 유아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것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조경서, 남기원, 2011).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혼가정 및 결손, 만성질환자 가정 등과 같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성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구희정, 2010). 한편, 가정은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차원 환경으로 인간의 초기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손영숙, 1984). 가정환경 변인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부모의 행복감,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유아의 행복감을 분석하였다(권연희, 2013; 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김도란, 김정원, 2008; 전은옥,

최나야, 2013). 최근에는 가족건강성이라는 변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아는 가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의 안녕과 정서적인 건강에 기여하는 가족구성원의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이 필수적이고,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은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훈련되기 때문에(유영주 등, 2004) 가족건강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뿐만 아니라 행복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유아는 가족으로부터 사회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부모의 태도와 상호작용을 포함한 가정환경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권연희,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사회성, 행복감(권연희, 2015; 박현진, 양혜원, 2013;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안선희, 김선영, 2004; 이진숙, 김은주, 2013)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안선희, 김선영(2004)과 권연희(20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감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들을(어은주, 유영주, 1995; Stinnett, Chesser, & DeFrain, 1979)을 고려할 때, 장시간 기관에서 머무르는 유아에게도 가족건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또래유능성, 또래 간 인기도, 유아교육기관 적응 등이 유아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다(권기남, 성미영, 2010; 권연희, 2013; 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김지혜, 2011; 박윤, 양진희, 2012; 오연주 등, 2015; 하선아, 2013). 그 중에서도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들이 발달의 초기부터 타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고 유아교육기관이라는 낯선 환경에 속하게 되면서 행복감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현, 김성미, 2014; 김지혜, 2011; 이정민, 2009; 장영애, 박주은, 2015).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새로운 환경 및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이후 성장에서도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장영애, 박주은, 2015). 이와 같이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행복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정민,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에서 보육환경 변인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이나 가족 관계 변인에 비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고(박주은, 2016),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들의 행복감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부모와 분리되어 장시간 낯선 기관 환경에서 생활해 가야 하는 유아에게 어린이집 적응은 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행복감을 개인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변인을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변인들이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행복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변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유아의 행복감에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었던 개인, 가정, 보육 관련 변인들이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의 행복감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보육환경 변인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이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각 변인들이 유아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유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행복감과 유아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그리고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건

강성 그리고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이 어린이집 유아의 행복감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8개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176명, 유아의 어머니 176명, 담임교사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 8곳에 한하여 부모동의서 및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해 250부 배부하였으며, 176부가 회수되었다. 유아가 유아행복감 검사를 거부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포함하여 총 22부를 제외하고, 총 15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연구 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연령은 4세가 75명(48.7%), 5세가 79명(51.3%)이었다. 성별은 남자 유아가 79명(51.3%), 여자 유아가 75명(48.7%)이었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N = 154)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세	75	48.7
	5세	79	51.3
성별	남아	79	51.3
	여아	75	48.7
합계		154	100

연구 대상 유아의 부모 연령을 보면, 아버지 연령이 40대 77명(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114명(74.0%)로 각각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82명(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26명(16.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4명(15.6%), 전문대 졸업이 21명(13.6%)순으로 분포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81명(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이 33명(21.4%),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1명(13.6%), 대학원 이상이 18명(11.7%)순이었다. 부모의 취업 여부는 아버지의 경우 154명(100.0%) 모두 취업 중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116명(75.3%)이 취업, 38명(24.7%)이 무직의 상태였다. 월 평균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117명(76.0%)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이 20명(13.0%), 200-300만원이 15명(9.7%), 100-200만원이 2명(1.3%)순으로 분포하였다.

2. 측정도구

유아의 행복감

유아가 생각하는 자신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화(2005)가 개발한 아동의 행복감 검사 도구를 김도란과 김정원(2008)이 유아수준으로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이다. 검사자와 유아가 1:1 면담하는 방식으로 “OO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와 같이 유아의 이름을 넣어 질문을 읽어주면 유아가 스마일 그림카드를 선택하는 Likert식 4점 평정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

표 2. 연구 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 = 154)

변수		내용	빈도(명)	백분율(%)	
연령	부	20대	1	0.6	
		30대	75	48.7	
		40대	77	50.6	
		50대	1	0.6	
	모	20대	2	1.3	
		30대	114	74.0	
		40대	38	24.7	
학력	부	고졸이하	24	15.6	
		전문대 졸	21	13.6	
		대학교 졸	82	53.2	
		대학원 이상	26	16.9	
	모	고졸이하	21	13.6	
		전문대 졸	33	21.4	
		대학교 졸	81	52.6	
		대학원 이상	18	11.7	
취업여부	부	취업	154	100	
	모	취업	116	75.3	
		무직	38	24.7	
가정 월 평균수입		100-200만원 미만	2	1.3	
		200-300만원 미만	15	9.7	
		300-400만원 미만	20	13.0	
		400만원 이상	117	76.0	

는 최저 30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의 계수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LeBuffle와 Naglieri(1999)가 개발한 만 2~5세 유아용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인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DECA)를 고영희(2010)가 수정,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크게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구분된다. 보호 요인은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의 3

가지 하위영역으로, 위험 요인은 염려되는 행동의 1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에 해당하는 문항은 8문항, 주도성은 12문항, 자기통제는 7문항, 염려되는 행동은 10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이다.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저 37점에서 최고 185점으로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의 보호 요인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요인인 염려되는 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염려되는 행동 요인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도구는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4주 이상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어머니나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의 계수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한명숙(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며 가족원과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4개 하위영역으로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2점에서 최고 1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대한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의 계수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가 개발한 유아교육기관 적응 질문지인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PAQ)를 번안하여 사용한 임원신(2006)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친사회성, 기관에서의 정서상태, 또래간의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정자는 유아의 담임교사로써 유아의 평소 관찰한 행동결과를 바탕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의 계수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실제범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유아 교육기관 적응이 만 4, 5세 어린이집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 행복감 차이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수준에 대한 차이 분석에 앞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 행복감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 점수는 최소 68점에서 최대 120점까지로 평균은 104.25점이었다.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

성 점수는 최소 114점에서 최대 176점으로 평균은 140.10점이었다. 가족 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 점수는 최소 89점에서 최대 157점으로 평균은 119.50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는 최소 72점에서 최대 139점으로 평균은 105.63점이었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유아의 행복감은 여아($M = 105.28$, $SD = 8.86$)가 남아($M = 103.26$, $SD = 12.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복감의 하위 요인에서도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를 포함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고 있는 행복감 수준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유아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른

표 3.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변인, 행복감의 전반적 경향 ($N = 15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실제값(범위)	
				최소값	최대값
개인적 특성 변인	자아탄력성	140.10	13.20	114	176
가족 관계 변인	가족 건강성	119.50	13.27	89	157
보육 환경 변인	유아교육기관 적응	105.63	12.45	72	139
유아의 행복감	유아의 행복감 전체	104.25	10.65	68	120
	가정환경	38.25	4.30	24	44
	자아특성	28.30	3.09	16	32
	능력	20.84	2.62	14	24
	대인관계	16.86	2.74	9	20

표 4.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 행복감 차이 ($N = 154$)

		남아 ($n = 79$)	여아 ($n = 75$)	t
		$M(SD)$	$M(SD)$	
유아의 행복감	가정환경	38.19(4.46)	38.32(4.14)	-.19
	자아특성	27.91(3.49)	28.70(2.55)	-1.62
	능력	20.53(2.96)	21.16(2.17)	-1.50
	대인관계	16.63(2.93)	17.09(2.51)	-1.04
	행복감 전체	103.26(12.07)	105.28(8.86)	-1.18

표 5.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 행복감 차이 ($N = 154$)

		만 4세 ($n = 75$)	만 5세 ($n = 79$)	t
		$M(SD)$	$M(SD)$	
유아의 행복감	가정환경	39.43(3.66)	37.14(4.57)	3.42**
	자아특성	28.59(2.74)	28.03(3.38)	1.14
	능력	21.25(2.39)	20.44(2.78)	1.94
	대인관계	16.83(2.57)	16.89(2.90)	-.14
	행복감 전체	106.09(9.31)	102.49(11.57)	2.13*

* $p < .05$. ** $p < .01$.

전체적인 유아의 행복감은 만 4세($M = 106.09$, $SD = 9.31$)가 만 5세($M = 102.49$, $SD = 11.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13$, $p < .05$). 행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가정환경($t = 3.42$, $p < .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 4세($M = 39.43$, $SD = 3.66$)가 만 5세($M = 37.14$, $SD = 4.5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지각하고 있는 행복감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만 4세가 만 5세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변인 간 상관관계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유아의 행복감과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 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표 6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보육환경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표 6.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41**	1						
3	.36**	.52**	1					
4	.42**	.42**	.32**	1				
5	.84**	.28**	.36**	.31**	1			
6	.88**	.35**	.26**	.37**	.64**	1		
7	.81**	.40**	.33**	.36**	.52**	.68**	1	
8	.80**	.36**	.24**	.40**	.49**	.65**	.62**	1

주. 1. 유아의 행복감, 2. 자아탄력성 3. 가족건강성 4. 유아교육기관 적응 5. 유아의 행복감_가정환경 6. 유아의 행복감_자아특성 7. 유아의 행복감_능력 8. 유아의 행복감_대인관계

** $p < .01$.

변인인 자아탄력성($r = .41, p < .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r = .36, p < .01$)과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r = .42, p < .01$) 또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가정환경($r = .28, p < .01$), 자아상태($r = .35, p < .01$), 능력($r = .40, p < .01$), 대인관계($r = .36, p < .01$)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 또한 유아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가정환경($r = .36, p < .01$), 자아상태($r = .26, p < .01$), 능력($r = .33, p < .01$), 대인관계($r = .24, p < .01$)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적응도 유아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가정환경($r = .31, p < .01$), 자아상태($r = .37, p < .01$), 능력($r = .36,$

$p < .01$), 대인관계($r = .40, p < .01$)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고,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할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보다 낮고, 가족구성원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분석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고,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항들이 상호간에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개인적 특성 변인인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 교육기관적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1.79로 오차항들 간 자

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값은 17.64 ($p < .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독립변인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포함하여 3가지 변인이 투입되어 어린이집 재원중인 유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26%($R^2 = 0.26$)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18%($R^2 = 0.18$)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탄력성이 첨가됨으로 설명력 6%(R^2 변화량 = .06)가 증가하여 24%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족건강성이 추가될 경우 2%(R^2 변화량 = .02)가 증가하여 전체 26%($R^2 = 0.26$)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즉,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성

표 7.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154$)

단계	독립변인		B	β	F	R^2	adj. R^2	ΔR^2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1	(상수)		66.22							
	보육환경변인	유아교육기관적응	.36	.42***	32.70***	.18	.17		1.00	1.00
2	(상수)		45.47							
	보육환경변인	유아교육기관적응	.26	.30***	23.88***	.24	.23	.06	.82	1.22
	개인적 특성변인	자아탄력성	.24	.28**					.82	1.22
3	(상수)		40.10							
	보육환경변인	유아교육기관적응	.24	.28***	17.64***	.26	.25	.02	.80	1.24
	개인적 특성변인	자아탄력성	.16	.20**					.65	1.53
	가족관계변인	가족건강성	.14	.17*					.71	1.40

* $p < .05$. ** $p < .01$. *** $p < .001$.

공적인 적응을 하여 생활하고,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beta = .28$),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beta = .20$), 가족 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beta = .17$) 순으로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이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그리고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진행될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행복감은 남아, 여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강영옥(2009), 김도란과 김정원(2008), 조경서와 남기원(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권기남과 성미영(2010), 전은옥과 최나야(2013)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반면, 연령 집단에 따라 유아의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 4세가

만 5세보다 전체적인 행복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남덕임, 2004;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만 4세보다 만 5세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이은주(2010), 전고은(2015)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 등)을 모두 합해도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총 변량이 약 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Myers & Diener, 1995)에 기초할 때,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유아의 행복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은 어린이집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미애, 2016; 오연주 등, 2015; 조경서, 남기원, 2011; 최선미, 최미숙,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아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은 유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를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유아가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마송희, 2012). 이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한다.

셋째,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가족관계 변인인 가족건강성은 어린이집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행복감과 가족건강성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한 권연희(2013)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한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 기능과 유아의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를 살펴본 권미나와 김광웅(200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들(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9; 박현진, 양혜원, 2013; 송인숙 등, 2013; 이진숙, 김은주, 2013)과 입장을 같이한다. 이는 자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이므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하여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과 보육환경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어린이집 유아의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행복감 요소들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이은주(2010)의 연구를 지지하며,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유아의 행복감과 의미 있는 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고현, 김성미, 2014; 김지혜, 2011; 육아정책연구소, 2014; 장영애, 박주은,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아가 교육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

끼며 생활하는 것이 이후 행복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장영애, 박주은, 2015).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개인 특성적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이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을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 관계 변인(가족건강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행복감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가졌다. 즉, 유아교육기관적응의 보육환경 변인 측면이 개인적 특성(자아탄력성)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다 유아의 행복과 의미 있게 관련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의 경우, 기관에서의 적응이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보다 유아의 행복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이 기관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일과에 따라 생활하고,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과 주도성을 가지고 어린이집 생활을 할수록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고현, 김성미, 2014) 있으며, 기관에서는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유아의 개인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자아탄력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강한 예측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주장하며(김소영, 김성혁, 안미영, 2016; 김현진, 지성에 2014; 홍지명, 2015),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5가지 하위요인(친사회성, 기관 내에서의 정서 상태, 또래간의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과 자아탄력성의 3가지 하위요인(주도성, 자기통제,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적응 다음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유아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적절히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 유아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게 애착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며, 주도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신장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건강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자아탄력성 다음으로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정에 비해 더 많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의 가족건강성이 유아에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과 생활이 보다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할 지라도 유아는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으

로 생활의 장을 옮겨 오는 순간, 직접 경험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높은 가족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아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가치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민주적이어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고 이야기 하며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안선희, 김선영,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 형성되는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현, 김성미, 2014).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도 또래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러한 경험들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므로, 유아의 행복감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을 통해 유아의 행복감을 포괄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경우는 개인적 특성 변인이나 가족건강성과 같은 가정환경변인보다 보육환경 변인인 기관 적응이 유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밝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보육의 질 확보가 유아의 행복감에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유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임의 선정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 14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복감을 교사나 부모평정이 아니라 유아에게 직접 연구자가 측정하고,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은 어머니가, 유아교육기관은 교사가 평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변인 수가 적어 통계 분석 상으로 문제는 없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개별 검사하여 유아의 행복감을 조사했지만,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유아의 행복감을 측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복감에 대해 유아나 담임교사, 부모의 인식을 인터뷰하여 보완하거나 유아의 행동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가족관계 변인(가족건강성), 보육환경 변인(유아교육기관 적응)으로 변인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 가족관계 변인, 보육환경 변인 중 다른 변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옥 (2009). 유아의 행복감과 행복개념에 대한 인식. *한영논총*, 13, 451-477.
-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 현, 김성미 (2014). 유아 정서지능, 유치원 적응,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15-136.
- 교육부 (2016). 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 <http://kids.moe.go.kr>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기남, 성미영 (2010). 유아의 행복감이 문제 행동 및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57-270.
- 권미나, 김광웅 (2004). 가족 기능과 유아의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119-133.
- 권연희 (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25-537.
- 김경훈, 김형재, 이은림 (2013). 아버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및

- 행복감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5-32.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미애 (2016). 행복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 김성혁, 안미영 (2016).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397-406.
- 김지혜 (2011).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과 유치원 적응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9).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김현옥 (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진, 지성애 (2014).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2(1), 233-257.
- 김희숙 (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덕임 (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 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송희 (2012). 행복한 아이들과 유아교육과정의 방향. 중앙유아교육학회소식, 22, 1-3.
- 박 윤, 양진희 (2012). 또래 간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 문제행동 및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73-103.
- 박주은 (2016). 유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아동교육, 25(3), 75-94.
- 박찬옥 (2014). 기초강연: 유아의 행복에 기반한 유·보 통합 다지기. 한국유아교육연구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9-27.
- 박현진, 양혜원 (2013).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57-278.
-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손영숙 (1984). 영·유아의 양육책임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79-598.
- 신지혜, 최혜순 (2014). 유아행복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4(1), 5-28.
- 안경숙 (2013). 뇌 기반 연구가 유아 행복에 주는 교육적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80, 1-17.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 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재민 (2016. 5. 2). 어린이에게도 불행한 대한민국 OECD 행복지수 최하위.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에서 2016년 5월 5일 인출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오연주, 김현지, 이정수 (2015). 유아의 행복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유아의 연령, 성별, 모자애착관계, 자아탄력성, 또래유능성을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9(2), 187-209.
- 유영주, 강희중, 김밀양, 김순기, 김연, 박정희, 배선희, 손정영, 안재희, 양순미, 오운자, 이인수, 이정연, 이창수, 전영자, 최희진, 홍성례, 홍숙자 (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육아정책연구소. (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5). 2015 한국아동패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민 (2009). 유아행복교육의 가능성 탐색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65-181.
- 이경민 (2016).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한 유아기 행복의 구성요인과 측정방법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36(1), 499-514.
- 이수영 (2016. 2. 25). 국민 4명중 1명 정신질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OECD 1위.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06809>에서 2016년 3월 29일 인출
- 이은주 (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5). 초등학교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 임상희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신 (200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애, 박주은 (2015). 유아의 행복감이 문제행동과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 24(4), 273-291.
- 전고은 (2015). 유아의 기질과 유아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옥, 최나야 (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최미진, 유희정 (201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만3, 4, 5세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3), 117-141.
- 최선미, 최미숙 (2016). 유아 행복과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기질, 양육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4), 315-336.

- 하선아 (2013).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 (2013).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지명 (2015).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 기관 적응 간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 21, 6(4), 911-927.
- George Vaillant. (2010).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간성장보고서. 김덕남(역). 서울: 프리티어. (원본 발간일, 2002)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A.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Lebuffe, P. A., & Naglieri, J. A. (1999).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Lewisville. NC: Kaplan Press.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Stinnett, N., Chesser, B., & DeFrain, J. (1979). *Building family strengths: Blueprints for action*. Lincon: Univ. of Nebraska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7.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1.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8.

An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 Young Children

Heo, Minji

Kim, Jinwook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u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appiness in 4 and 5 years old children and the relative effects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personal factor (ego-resiliency), the family relation factor (family strength), and early childcare factor (facility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institution). Participants were 154 children ages 4 and 5 who attend childcare centers as well as their mothers and the 19 teachers in charge of them. Using SPSS 21.0 package,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y, family strength,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institution, and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adjustment to the early childhood institution showed the largest explanatory power on the variance of their happiness, followed by ego-resiliency and family strength. Study results reveal the critical impact of smooth adjustment on the happiness of the children who attend these childcare centers as this factor was shown more powerful than strong personal and family relations. The results call for an enhancement of early childcare quality to help ensure children's happiness.

Keywords: childcare center, young children, happiness